



자전거 도로 정보 13편

# 낙동강 자전거길

## 칠백 리 굽이굽이 삶의 뿌리를 찾아 달린다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는 낙동강을 이웃한 낙동강자전거길은 사계절 풍경이 주마등처럼 흐르는 한 편의 대하소설이자 서사시다. 새재와 만나 국토 종주를 펼친다. 하늘조차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는 뜻의 경천대는 낙동강 물길 중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다는 곳이다. 소백산 줄기를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산봉우리는 경천대에 이르러 동양화와 다름없는 풍경을 완성한다. 상주 상풍교에서 새재 자전거길과 만나는 낙동강자전거길은 하회마을과 회룡포를 지난 경천대에 오른 후 낙동강 하굿둑에서 국토 종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 하늘이 만든 경치, 경천대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경북 상주의 경천대(擎天臺)는 이름 그대로 '하늘을 떠받치는 절경'을 자랑하는 명소다.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이곳은 고려 공민왕이 흉건적의 난을 피해 머물렀던 역사적 장소로도 유명하다. 전망대에 오르면 낙동강의 푸른 물결과 기암괴석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며,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특히 해 질 무렵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장관이다. 자연이 빛어 낸 절경과 함께하는 경천대는 역사와 풍광이 함께하는 힐링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52



이와 선유줄불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회마을은 한국의 미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다.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남촌길 63

### 용이 휘감은 육지 속의 섬,

### 예천 회룡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물돌이 마을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350도 휘돌아 나가는 육지 속의 섬마을로서, 예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으로 주변에 장안사, 황목근, 용궁향교, 원산성, 용궁역테마공원, 용궁수대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하다. 또, 회룡포에서 삼강주막까지의 강변길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걷기 좋은 '우리마을 녹색길 명품 베스트 10'에 선정된 자연친화적 녹색길이다. 🇰🇷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359

(다음 호에 계속) - 자전거 도로 정보 제14편

#### 참고자료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 한국관광공사, 경북도청, 경북나드리 누리집

###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있는

### 하회마을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은 600년 역사를 지닌 풍산 류씨 집성촌으로, 한국 전통 유교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는 독특한 지형은 자연과 조화로운 한국인의 삶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유학자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며, 와가와 초가가 어우러진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 코스정보

상주 상풍교 - 상주보 - 낙단보 - 구미보 - 칠곡보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 창녕보 - 창녕 함안보 - 양산물문화관 - 낙동강 하굿둑

전체거리 389km

예상시간 26시간

난이도